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0. 12. 28.(월) 16:00 (총 5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예보국 예보분석팀	담당자	예보전문관 한 상 은
		전화번호	02-2181-0775

연말연시 전국 강추위

- 전라도, 제주도, 울릉도·독도 대설 주의 -

- 12월 29일 밤~1월 1일 전국 한파,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
 - 중부지방 중심 체감온도 -20℃ 안팎, 1월 초순 강추위 지속
 - 건강관리·수도관 동파 유의, 장기간 이어지는 추위 대비 필요
- 전라서부 최고 30cm 이상, 제주도산지, 울릉도·독도 최고 50cm 이상 많은 눈
 - 눈길, 빙판길 교통안전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대비 철저!



[12월 30일 오후 예상기압계 모식도]

- 기상청(청장 박광석)은 내일(29일) 낮부터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연말연시(30일~1월 1일) 동안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가 나타나겠다고 밝혔다. 또한, 30일(수)~1월 1일(금)에 전라도·제주도산지·울릉도·독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하며 한파와 대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.

[기압계 전망]

- 기상청은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12월 29일(화) 밤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강한 한파와 함께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눈 구름대의 영향을 받는 전라도·제주도산지·울릉도·독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.
- 29일 밤부터 대륙고기압에 의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고, 12월 30일~1월 1일은 5km 상공에 -30℃ 안팎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추위의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분석했다.
- 이후, 1월 2(토)~3일(일)은 찬 공기의 유입 강도가 다소 주춤하겠지만, 4일(월)부터 다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월 초순에도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.

[추위 전망]

- 29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여, 30일~1월 1일의 아침 최저기온은 중부내륙이 -15℃ 안팎, 남부내륙이 -7℃ 안팎을 보이면서 전국에 강한 한파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.
- 특히, 30일은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, 31일(목)은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-13℃, 그 밖의 중부내륙은 -20℃ 안팎으로 내려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.
- 또한, 이 기간(12. 30.~1. 1.) 동안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5~10℃ 가량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,
-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함은 물론 선별진료소 등 야외 업무 종사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권고했다.
- 1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의 유입 강도가 다소 주춤하면서 일시적으로 추위가 약해지겠지만, 4~5일부터 다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고, 이후에도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다.
- 기상청 예보관은 “추위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건강관리와 함께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비닐 하우스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대한 유의도 필요하다”고 당부했다.

[많은 눈 전망]

- 30일~1월 1일에 매우 찬 공기가 서해상과 동해상을 지나면서 눈 구름대가 발달하고, 이 눈 구름대가 유입되는 충청남과 전라도, 제주도, 울릉도·독도에 눈이 내릴 것으로 분석했다.
- 특히, 찬 공기가 유입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눈 구름대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충청서해안과 전라도, 제주도, 울릉도·독도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밝히면서,
- 비닐하우스 붕괴 등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,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항공편이 결항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용객들이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.
- 또한, 29일 전국에 비/눈이 내린 후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이후에도 추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쌓인 눈이 녹지 않거나 비가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다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.

<12월 30일~1월 1일의 예상적설>

- 충청서해안, 전라도: 5~20cm
(많은 곳 전라서부 30cm 이상, 제주도산지, 울릉도·독도 50cm 이상)
- 제주도(산지 제외): 3~8cm
- 충남내륙, 서해5도: 1~5cm

※ 12월 29일의 예상강수량/적설은 16시에 발표되는 날씨해설과 동네 예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
- 기상청 예보관은 “다음 주에 찬 공기가 유입되는 강도가 다시 강해지면서 해상에 눈 구름대가 발달하고, 이 눈 구름대가 유입되는 전라도, 제주도, 울릉도·독도를 중심으로 5일부터 다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”고 덧붙였다.

[강풍과 풍랑 전망]

- (강풍) 29일 낮부터 서해안과 전남남해안, 제주도에 바람이 35~60km/h(10~16m/s)로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, 30일부터 동해안, 경남남해안, 일부내륙과 산지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했다.
 -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, 1일까지도 바람이 강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
 - 또한,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씨가 번지지 않도록 각종 화재예방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.
- (파도) 서해상과 남해서부해상, 동해중부먼바다, 제주도해상은 29일 낮부터, 동해남부해상과 남해동부해상은 30일부터 35~60km/h(10~16m/s)의 강한 바람과 함께 2~5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, 강한 바람과 물결은 1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.
 - 특히, 서해상과 동해상은 눈 구름대가 발달하여 시정이 좋지 않은 만큼 해상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고 전했다.